

人文論叢

81권 3호

2024년 8월

서평

www.kci.go.kr

신탁을 전유하는 학문적 연행에 대한 참여 관찰기

허용호*

[서평] 조현설(2024), 『신탁 콤플렉스: 신화와
전설로 읽는 한국 사회의 불안과 점복 문화』,
이학사, 208쪽

1. 개념 정리와 나의 신탁 체험

이 책의 핵심 개념은 ‘신탁’(oracle)과 ‘신탁 콤플렉스’(oracle complex)이다. 그런데 저자는 두 용어의 개념 정의를 분명하게 하지 않는다. 물론 책 곳곳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 맥락을 통해 그 개념을 짐작할 수는 있다. 저자에 의하면 신탁은 신의 말, 곧 신이 내리는 예언이나 명령이다. 불안한 삶에서 인간은 신탁을 찾지만, 그 신탁은 다시 불안을 키우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신탁을 절대화하며 의존하는 집착 상태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러한 병적인 상태가 신탁 콤플렉스라 할 수 있다. 신탁이라는 용어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신탁 콤플렉스라는 개념은 저자가 “발명”한 것이다. 물론 이 용어를 저자가 이전에도 사용한 바가 있다.² 하지만 이 용어의 본격적인 개념화는 이 책에서 처음으로 시도했다. 더구나 그 시도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지구 차원에서도 최초이다. 전 지구에서 최초의 신탁 콤플렉스 관련 저서가 이 책이라 할 수 있다.

* 신경주대학교 문화유산학부 특임교수

1 조현설(2024), 「신탁에 홀린 자들」, 『대학지성』, <https://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02>(접속일: 2024. 7. 29.).

2 조현설(2015), 「신탁 콤플렉스」, 『문학사상』 2015년 12월호.

이 책의 본격적 시작 대목은 파격적이면서도 흥미롭다. 필자가 책을 펼쳐 ‘여는 말’을 읽고 난 후,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을 기대하며 마주한 1장의 첫 번째 소제목은 “여자 조심해!”이다(p. 15). 이 소제목은 저자 자신의 신탁 경험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이기도 하다. 저자의 신탁 경험 토로는 필자가 신탁이라는 용어에서 기대하는 신성함이나 비장함과도 거리가 있었다. 그런데 필자의 기대를 저버린 논의 시작 대목의 파격은 필자를 실망하게 하기보다는 흥미를 느끼게 만든다. 이에 필자 또한 신탁 관련 개인 경험의 토로로 이 글의 초반부를 시작한다. 저자의 파격과 흥미로움에 미치지 못할 것이 분명하지만, 나름의 파격 시도와 필자의 내면을 돌아보기 위한 한 방편으로 ‘나의 신탁 체험’을 되돌아보려 한다. 혹 필자 내면에 스며든 신탁 콤플렉스에서 탈주하기 위해서라도 그 경험의 반성적 되새김은 필요하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1984년 여름 어느 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의 어느 한적한 시골 가게 앞 길가에 널브러져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다. 나는 친구들과 제주도 도보여행 중이었다. 가게 앞에는 우리 말고 또 다른 이가 자리하고 있었다. 허름한 행색의 할머니였다. 낮선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할머니는 다짜고짜 나를 지적하며 사주를 봐주겠다고 했다. “동자신이 부른다. 소주를 한 고뿌 사주면 사주를 봐준다.” 나는 무관심한 척했다. 그리고 소주를 사주지도 않았지만, 할머니는 나에게 한 마디를 더 던졌다. “관재수가 있다. 조심하라!” 그 과정은 거의 기억에 없지만, 심지어 그 할머니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말만큼은 분명하게 기억난다.

가게 주인아주머니가 “동네에서 가끔 이상한 소리를 하는 할망”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꺼림직한 기분이 드는 것은 분명했다. 학생운동이 대학가를 휘몰아치던 1980년대 대학생에게 ‘관재수’(官災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분명한 신탁이었다. 이상한 소리를 하는 동네 할망이라는 중개자를 통해 전해진 ‘동자신’(童子神)의 말이자 예언이었다. 뭔가 꺼림직한 불안감이 한순간 밀려오기도 했지만, 필자는 금

세 잊어버렸다. 그리고 일 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실제로 ‘관재수에 휘말렸다’. 국가권력으로부터 화를 당한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신탁에 유의하지 않았던 결과로 생각하진 않았다. 나에게 이 경험은 어쩌다 우연히 예언이 맞아떨어진 신기한 사례 정도로 인식되었을 뿐이다.

제주도에서의 신탁은 ‘동네에서 가끔 이상한 소리를 하는 할망’이라는 중개자의 비신뢰성 탓에 잡음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필자는 신뢰성 있는 중개자를 통한 신탁 역시 경험한 적이 있다. 그것은 “몇 년에 한번씩은 만 리(萬里)를 본다.”라는 황해도 만신에게서 받은 신탁이다. 그 신탁은 나만 받은 것은 아니었다. 1986년 말인가 아니면 1987년 초에 나를 포함한 몇몇은 황해도 만신에게 황해도곳을 배웠다. 그녀는 장구 가락을 가르쳐 주다 말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 만신은 1980년 광주에서의 비극 역시 예견한 이로 우리들 사이에서는 유명했다. 그런 그녀가 어느 날 “올해(1987년)는 아주 좋지 않다. 난리가 난다. 1980년보다도 더한 피냄새가 많이 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우리에게 말했다. “너희들 데모하는 것 다 안다. 하지만 조심해라. 경거망동하지 마라!”

황해도 만신의 신탁은 제주도 어느 시골 할망의 신탁 상황과는 아주 달랐다. 분위기는 엄숙했고,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웃어넘기지 않았다. 나는 심장이 쿵쿵거림을 느끼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때 이후 만신의 예언과 명령을 나는 잊어 버렸다. 불안은 커녕 기억하지도 못할 정도로 당시 정세가 너무 급하게 흘러간 이유도 있을 듯싶다. 당연히 우리는 조심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1980년의 아쉬움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데모’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 만신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린 것은 1987년 말이었다. 한 해를 되돌아보는 송년회 자리에서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 만신의 예언에 관해 이야기하고, 예언했던 만큼의 피를 보지는 않았던 것에 대하여 우리는 “정말 다행이라며” 덕담 한마디씩 했다.

필자의 두 가지 신탁 체험을 떠올려 보았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필자에게는 더 많은 신탁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두 체험이 두드러지게 떠오

르는 것은, 그 강렬함 때문인 듯싶다. 두 가지 체험 모두에서 필자는 신탁이 전하는 금지나 명령대로 행동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아무런 내적 반응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제주도 시골 할망의 신탁에서 느꼈던 꺼림직함이나 황해도 만신의 신탁을 접할 때의 뛰던 심장의 기억은 여전히 강렬하다.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꺼림직함과 쿵쾅거리던 가슴은 어찌면 불안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불안의 실마리 한 올이 필자의 마음 한쪽 구석에 자리한 증거일 수 있는 것이다. 저자의 논리에 의하면 불안은 신탁 콤플렉스로 이행하는 첫걸음이기애, 신탁을 통해 초래된 불안의 한 조각을 품고 있었던 필자가 신탁에 홀릴 가능성은 열려 있었다.

2. 신탁 콤플렉스의 안과 밖

『신탁 콤플렉스』의 구성은 앞뒤에 ‘여는 말’과 ‘맺음말’을 각각 배치하고, 그 사이에 6개의 장이 자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여는 말과 맺음말 사이에 자리한 6개의 장은 각각 고유의 제목을 갖고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그 내용의 유사성에 따라 전반부와 후반부라는 두 개의 대목으로 대별이 가능하다. 1장에서 3장까지의 전반부가 ‘신탁에 홀린 자들의 열전(列傳)’이라 부를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면, 4장에서 6장까지의 후반부는 ‘신탁에 맞서거나 탈주하는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중심이 되고 있다. 전반부 논의가 ‘불안-신탁-콤플렉스’라는 신탁 콤플렉스로의 이행에 치중한 신탁 콤플렉스 내부 지향적 연구였다면, 후반부 논의는 신탁 콤플렉스로의 이행 경로에 맞서거나 탈주하는 전략 중심의 외부 지향적 연구라 할 수 있다. 필자가 2절의 제목을 ‘신탁 콤플렉스의 안과 밖’이라 명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2.1. 신탁에 홀린 자들의 열전

『신탁 콤플렉스』 전반부에 해당하는 1~3장에서는 <바리데기> 신화와 오이디푸스 신화의 등장인물들을 신탁 콤플렉스라는 개념을 통해 새롭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다. 저자의 새로운 이해와 해석은 불안과 신탁의 관계 규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불안과 신탁의 상호영향 아래서 콤플렉스로까지 이행하는 모습이 <바리데기> 신화와 오이디푸스 신화 속 여러 인물의 행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거론되는 신화 속의 인물들은 모두 “신탁에 홀린 자들”³로서 불안에서 출발하여 신탁에 의지하고 집착하다가 파멸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여기서 다뤄지는 ‘어뤼대왕’, ‘덕주아 부인’, ‘오이디푸스’, ‘라이오스’ 등은 신탁에 홀린 자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물들을 차례차례 살펴보는 이 대목은 그래서 ‘신탁에 홀린 자들의 열전’이라 부를 만하다.

『신탁 콤플렉스』의 「1장 불안과 신탁, 혹은 신탁과 불안」의 핵심 내용은 신탁과 불안의 관계 규명에 대한 것이다. 저자는 자신의 신탁 경험(「여자 조심해!」, pp. 15-17), 문헌 기록에서 발견한 유학자들의 신탁 사례(「유학자들이 신탁을?」, pp. 17-22), 근현대의 점복과 신탁 문화 양상(「근대 민속사회의 점술과 신탁」, pp. 23-28), 신탁을 묻는 형식·신탁의 중개자·신탁의 언어 표현 형식(「이야기와 신탁의 형식」, pp. 28-30) 등을 차례로 살핀다. 그리고 마침내 불안과 신탁의 관계 속에서 신탁 콤플렉스의 개념화가 이루어진다(「신탁과 신탁 콤플렉스」, pp. 31-34). 저자에 따르면 신탁 콤플렉스는 “어떤 신탁을 절대화하여 그 신탁에 매달릴 때, 신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작동할 때” 그 실체를 얻는다(p. 33). 여기서 저자가 규명한 신탁과 신탁 콤플렉스 및 불안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불안이 신탁을 부르고, 신탁이 불안을 키운다. 신탁 콤플렉스는 이러한 되먹임의 과정에서 병적 상태로 발현

되는 것”이다(p. 34).

「2장 〈바리데기〉의 불안한 인물들과 신탁 콤플렉스」에서는 〈바리데기〉 신화를 중심으로 신탁에 홀린 자들의 행로를 따라간다. 1장에서 살핀, 불안과 신탁의 관계와 신탁 콤플렉스로의 이행 과정이 〈바리데기〉 신화의 등장 인물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서술되는 것이다. 먼저 저자는 어부대왕의 불안에 주목하고(「어부대왕의 불안」, pp. 35-40), 이어서 함흥 〈바리데기〉의 덕주아 부인의 불안에도 주목한다(「덕주아 부인의 불안」, pp. 40-43). 그리고 이들의 불안은 현상적으로는 후손(아들)의 부재가 낳을 가계의 단절, 왕권 절단에 대한 불안이지만, 숨겨진 이면의 불안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대한 불안이라는 점을 밝힌다(「드러난 불안과 숨어 있는 불안」, pp. 43-48).

어부대왕과 덕주아 부인의 행로 추적은 “신탁에 집착하면서도 신탁을 회피하다가 오히려 신탁을 실현케 하는 신탁의 패러독스” 발견으로 맺어진다. 그리고 저자는 이러한 신탁의 패러독스에 “‘신탁 콤플렉스(oracle complex)’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다”라는 의견을 피력한다(「신탁 회피와 신탁 콤플렉스」, pp. 48-52). 저자에 따르면 어부대왕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신탁을 받지만 도피하고, 그 “도피가 불안감을 강화하여 다시 신탁에 매달리”는 행로를 보인다(p. 51). 덕주아 부인 역시 “신탁으로부터 집요하게 도주하다가 ‘일곱 딸을 낳아 구족이 망하리라’라는 신탁을 현실로 만”들고 있다(p. 51). 어부대왕과 덕주아 부인의 행로 모두에서 신탁의 역설이 드러나고 있다.

「3장 라이오스-오이디푸스의 신탁 콤플렉스」에서는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오이디푸스 신화를 논의 대상으로 삼는다. 신탁을 믿고 그것을 피하려고 한 오이디푸스 행위가 오히려 “네 나라로 돌아가지 말라. 돌아가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동침하리라.”라는 끔찍한 신탁을 완벽하게 실현시켜 버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p. 60). 여기서 저자는 오이디푸스 신화에 등장하는 오이디푸스와 그의 아버지 라이오스의 행로를 신탁 콤플렉스의 시각에서 새롭게 해석한다. 먼저 저자는 오이디푸스가 부친인 라이오스를 죽이는 과정까지를 불안과 신탁을 매개로 살핀다(「오이디푸스의 불안과 신탁」, pp. 59-

63). 이어서 저자는 부친 살해 이후 오이디푸스의 비극적 종말까지를 역시 불안과 신탁을 매개로 해석한다. 여전히 불안과 신탁 강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오이디푸스의 실명과 죽음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스핑크스와 테바이의 불안」, pp. 64-71).

불안과 신탁을 매개로 한 오이디푸스 신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은 기존의 해석, 특히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개념에 기반한 해석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저자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포획된 오이디푸스 신화 해석’에 비판적이다. 저자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하기 어려운 현상”이며 “오로지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유아적인 소원일 뿐”이라는 미셸 옹프레의 혹평에 동의한다(p. 76).⁴ 이렇게 저자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에 비판적인 접근을 시도한다(「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포획된 오이디푸스 신화」, pp. 71-78). 그 비판적 접근의 결론은 “오이디푸스 신화를 꿈이나 무의식과 같은 정신분석의 도구로 환원하지 말고, 신화의 맥락에서 다시 읽는 방법”을 제안한 것이다(p. 78).

위에서 저자가 새롭게 제안하는 ‘신화의 맥락에서 다시 읽는 방법’은 신탁 콤플렉스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보는 것이다. 이는 3장의 마지막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오이디푸스 부자의 진짜 콤플렉스」, pp. 78-83). 저자는 “이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개념은 폐기되어야” 하며(p. 82), “오이디푸스에게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없었다. 오이디푸스 부자를 비극으로 몰아간 것은 신탁 콤플렉스였다.”라고 단언한다(p. 83). ‘오이디푸스 부자의 진짜 콤플렉스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아니라 신탁 콤플렉스’라는 주장이다.⁵

4 미셸 옹프레(2013), 전해영 옮김, 『우상의 추락, 프로이트 비판적 평전』, 글항아리, p. 178.

5 저자는 이 책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 주장에 따라 오이디푸스 신화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왕의 계승과 가문의 내력에 대한 불안감이 부자를 신탁에 집착하게 했고, 신탁은 부자의 불안을 강화했다. 그래서 신탁에 매달리게 되었고, 신탁을 피하려다가 신탁을 현실화한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만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조현설(2024).

2.2. 신탁 콤플렉스에 맞서거나 탈주하는 방법

『신탁 콤플렉스』 후반부인 4~6장에서는 신탁 콤플렉스 관련 논의가 신화는 물론이고 민요, 민속놀이, 굿과 굿놀이, 전설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또한 논의 내용도 신탁 콤플렉스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신탁 콤플렉스에 맞서거나 탈주하는 전략이나 방식에 주목한다. ‘반신탁 콤플렉스’, ‘신탁놀이’, ‘의사신탁 콤플렉스’, ‘탈신탁 콤플렉스’ 등 신탁이나 신탁 콤플렉스에서 파생된 개념들이 적지 않게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 필자는 이 대목의 목차 제목을 ‘신탁 콤플렉스에 맞서거나 탈주하는 방법’이라 붙였다.

『신탁 콤플렉스』의 「4장 신탁놀이와 반신탁 콤플렉스」에서는 신탁을 상대화하거나 놀이화하여 신탁이 콤플렉스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사례들이 소개된다. 그런데 이에 어울리지 않은 사례가 있다. 앞에서 살핀 ‘신탁에 홀린 자들의 열전’에나 들어갈 만한 인물인 청정각시 관련 논의가 그 사례이다(「청정각시의 지독한 콤플렉스」, pp. 85-93). 저자는 청정각시가 “지독한 신탁 콤플렉스에 썩어” 있다고 평가한다(p. 93).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왜 신탁의 상대화와 놀이화, 신탁 콤플렉스에 맞서기와 벗어나기 등을 논의하는 대목에서 청정각시가 등장했을까? 아마 비교·대조를 위한 서술 전략에서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어지는 남매혼 유형의 홍수신화를 대상으로 한 신탁놀이 논의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신탁놀이와 의사(擬似)신탁 콤플렉스」, pp. 93-98).

저자는 중국 윈난 지역의 나시족 홍수신화를 살펴보면서 ‘신탁놀이’(oracle game)와 ‘가짜신탁 콤플렉스’(pseudo-oracle complex)라는 용어를 만들어낸다. 땃돌을 굴리거나 연기를 피워 올리는 식으로 오누이가 걸으려는 신탁을 묻고 있지만, 속으로는 인간의 뜻을 신의 뜻으로 꾸미는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저자는 신탁놀이를 “인간이 주체가 되어 신의 명령을, 신의 이름으로 강제되는 사회적 입법을 위반하는 놀이의 형식”으로 정의한다(p. 97). 이 정의에 따라 가짜신탁 콤플렉스 역시 설명한다. 저자에 따르면

가짜신탁 콤플렉스는 “신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뜻을 신의 이름으로 실현하고 있는” 신을 속이는 일련의 과정이다(pp. 97-98).

저자는 앞서 제기한 신탁놀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꼬떡각시놀이 통해 재확인한다. 그 과정은 꼬떡각시놀이 연행의 제 양상을 엄두에 두며 이루어진다. 부르는 노래의 사설, 춤, 대사, 움직임, 놀이 참가자들의 공감과 공명 등이 모두 고려된다(『꼬떡각시들의 신탁놀이』, pp. 98-105). 꼬떡각시놀이에서 부르는 노래인 〈꼬떡각시노래〉의 내용을 보면, 꼬떡각시의 삶은 고단하다. 조실부모하고 구박 속에서 자라다가,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갔지만 시집살이는 고되다. 심지어 시댁에 줄초상이 나며 신랑마저 죽어 과부가 된다. 결국 자살로 마무리되는 꼬떡각시의 삶은 청정각시 못지않다(pp. 98-101). 하지만 꼬떡각시놀이는 신탁 콤플렉스와는 거리가 있다. 저자가 〈꼬떡각시노래〉 사설에만 주목하지 않고, 그 연행 전반에 주목한 결과이다. 저자가 이 논의를 통해 찾아낸 것은 다음의 ‘신탁놀이이자, 불안풀이놀이로서의 꼬떡각시놀이’의 속성이다(p. 105).

4장의 마지막 소목차 제목은 ‘여신들의 반신탁 콤플렉스’이다(『여신들의 반신탁 콤플렉스』, pp. 105-119). 이 대목에서는 신탁 콤플렉스에 저항하거나 탈주하는 여신들이 소개되고 있다. 〈삼공본풀이〉의 가문장아기와 〈세경본풀이〉의 자청비가 그들이다. 가문장아기는 “스스로 운명의 주체가 됨으로써 신탁에 저항”하며(p. 187), 자청비는 “신탁 콤플렉스에 맞서는 여성, 맞섬으로써 여신이 된 존재”이다(p. 188). 저자는 이들의 형상과 행로를 설명하기 위한 용어로 ‘반신탁 콤플렉스(anti-oracle complex)’를 새롭게 제안한다. 반신탁 콤플렉스는 “신탁을 위반함으로써 신탁으로부터 거리를 확보하여 콤플렉스라는 심리적 상태를 해소”하는 양상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다(p. 106).

「5장 손님굿, 탈신탁의 신화와 놀이」에서의 주된 논의 대상은 손님굿이다. 천연두의 공포와 이에 대응하는 의례 고찰(『천연두의 공포와 대응』, pp. 121-123), 무속에서의 손님신에 대한 인식(『무속의 손님신 인식』, pp. 123-130), 손님굿 신화 구조의 고찰(『손님굿 신화의 구조들』, pp. 130-139) 등이 이 장에서 이

루어진다. 5장 논의에서의 핵심은 이어지는 두 대목 ‘손님굿 신화의 구조와 신탁의 관계’(『손님굿 신화의 구조와 신탁의 관계』, pp. 139-142)와 ‘〈막동이말놀이〉의 탈신탁 콤플렉스’(『〈막동이말놀이〉의 탈신탁 콤플렉스』, pp. 143-153)이다. 여기서 저자는 손님굿 신화와 굿놀이에서 신탁을 상대화하거나 조절하려는 전략에 대해서 논의한다.

손님굿 신화를 대상으로 논의하는 ‘손님굿 신화의 구조와 신탁의 관계’ 대목에서 주목되는 것은 “신탁 콤플렉스에 대응하는 전략적 국면”이다(p. 142). 저자는 “신탁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으면서도 전염이라는 역신의 행위를 무력화하는 전략, 신탁의 절대성을 무력화하는 서사 전략”을 손님굿 신화에서 발견한다(p. 142). ‘최고의 가택신인 세존신을 미리 손님네로 파견하여 손님네의 위험으로부터 집안을 보호하는’ 전략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를 “신탁을 상대화함으로써 신탁 콤플렉스로부터 거리를 두는 탈신탁 콤플렉스 전략”으로 부르자고 제안한다(p. 142).

저자는 이러한 전략을 손님굿에서 벌어지는 굿놀이 〈막동이말놀이〉에서도 재차 확인한다(『〈막동이말놀이〉의 탈신탁 콤플렉스』, pp. 143-153). 가택신이면서도 동시에 손님신으로 존재하는 ‘세존손님의 존재성’(p. 143)에 버금가는 역할을 〈막동이말놀이〉에서 칠원이(칠룡이)-막동이가 한다. “천연두로 죽은 칠룡이를 천연두 신을 모시는 마부로 배치함으로써 천연두를 통제하고 무력화하려는” 전략이다(p. 149). 이에 대해 저자는 “신탁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신탁을 조절하려는 탈신탁의 서사 전략”이라 말한다(p. 153).

‘반신탁’, ‘탈신탁’이라는 확장 개념을 만들어내며 진행되는 연구는 「6장 신탁 콤플렉스와 전설의 희비극」에 이르러 다른 차원의 확장을 시도한다. 이 책의 문제의식을 전설 양식으로까지 확장하는 것이다. 그 확장은 신탁 콤플렉스 관련 개념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 아기장수 전설에 대한 검토(『아기장수 전설과 신탁으로부터의 도피』, pp. 155-164), 풍수지리 관련 전설 논의(『풍수지리설과 신탁 콤플렉스』, pp. 164-171), 그리고 연명서사 관련 논의(『조작된 신탁과 연명 서사』, pp. 171-178)가 이어진다. 각 대목의 논의는 그 핵심

내용이 조금씩 구별된다. 아기장수 전설을 중심으로 한 신탁과 불안에 대한 논의, 풍수지리 관련 전설을 중심으로 한 신탁 콤플렉스 관련 논의, 연명 서사를 중심으로 한 신탁놀이 관련 논의 등으로 그 논의 중심이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

‘아기장수 전설과 신탁으로부터의 도피’ 대목은 아기장수 전설을 논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아기장수 전설은 “(아기의) 정체확인 → 아기살해”라는 정형화된 진행 형식”을 가지고 있다(p. 159). 여기서 저자가 주목하는 것은 “왜 아기(장수)를 살해하거나 희생양으로 삼았는지” 하는 점이다(p. 156). 이 문제를 저자는 불안과 신탁의 관계를 통해 설명한다. 저자는 “아기장수를 희생양으로 만들고, 살해하도록 강제하는 힘은 ‘불안과 신탁의 결합 구조’에서 온다”고 한다(p. 159). “불안에 대한 처방으로 주어진 신탁이 오히려 불안을 야기할 때, 개인이나 집단은 자식을 살해하고 희생양을 만들 강력한 동기를 획득한다”는 것이다(p. 159). 저자는 이것이 “신탁 콤플렉스가 현실에서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말한다(p. 159).

아기장수 전설 검토에 이어 저자는 ‘풍수지리설과 신탁 콤플렉스’ 대목에서 풍수지리설을 검토한다. 이는 아기장수 전설이 그 전승 과정에서 다른 유형의 전설들과 섞이면서 변형을 일으키는데, 그 가운데 “신탁 콤플렉스 문제를 드러내는 유형은 ‘풍수지리설’과 결합한 전설들”이기 때문이다(p. 164). 이에 제주도의 부대각 전설이 신탁 콤플렉스 맥락에서 재설명된다(pp. 164-168). 또한 경북 봉화 구산동 뒷걸마을의 단혈(斷穴)과 관련된 풍수전설도 검토된다(pp. 168-171). 그 검토 결과는 “권력욕·물욕·명예욕 등의 욕구에 고착되면 신탁은 콤플렉스라는 증상으로 회귀한다”는 단언이다(p. 171).

‘신탁에 홀린 자들’이 전설에서도 적지 않음을 확인한 저자는 신탁에 맞서거나 탈주하는 이들을 찾아 나선다. 6장의 ‘조작된 신탁과 연명 서사’ 대목이 그것이다. 저자는 “한국 무교의 신화와 관련 전설은” 오이디푸스 신화에서의 ‘가혹한 운명과 절대적 신탁을 향한 질주’와는 “상당히 다른 질감을 선사한다”고 말한다(pp. 171-172). 그 대표적 사례로 제시하는 것이 제주

도의 무속신화 <멩감본풀이>이다. 저자는 <멩감본풀이>가 ‘신탁을 고지할 뿐만 아니라, 질병이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하며, 따라서 신탁을 바꿀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고 한다(pp. 175-176). 그리고 이러한 “신탁의 조작 가능성은 신탁을 상대화한다”고 말한다(p. 176).

저자는 전설의 연명 모티프 역시 무속신화의 그것과 그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이를 검토한다(pp. 176-178). 그리고 신탁 콤플렉스 맥락에서 연명 서사를 검토한 결과를 “연명 신화와 전설의 세계관”으로 정리한다. 연명 서사의 인물들은 “인위(人爲)를 통해 운명에” 맞서는데, “적절한 조력자를 만나면 신탁은 조정될 수 있고, 그러면 행복을 구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p. 178).

3. 잘 읽히는 전문 연구서와 또 하나의 콤플렉스 징후들

『신탁 콤플렉스』는 일정한 수준의 전문 연구서 성격과 대중적 관심을 끌어내는 흥미의 요소가 어울린 저서이다. 연구서로서의 일정한 수준과 더불어 대중 교양서로서의 지적 욕구 충족과 재미를 함께 갖춘 ‘잘 읽히는 전문 연구서’의 모습을 띠고 있다. 물론 이 책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아쉬움이 생기고 우려되는 점도 있다. 새로운 용어의 창안에서 오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콤플렉스의 징후 역시 감지되는 것이다. 3절에서는 이상에서 언급한 이 책의 성과와 아쉬움을 ‘잘 읽히는 전문 연구서’와 ‘콤플렉스의 징후들’이라는 제목의 소목차로 나누어 살펴본다.

3.1. 잘 읽히는 전문 연구서

『신탁 콤플렉스』를 읽으면서 필자는 이 책의 성격에 대해 생각했다. ‘전문 연구서일까, 대중 교양서일까?’ 잠깐의 생각이었기에 고민이라고 말

할 수는 없다. 연구서라 하기에는 전체 208쪽이라는 분량이 아쉬웠고, ‘신화와 전설로 읽는 한국 사회의 불안과 점복 문화’라는 부제목 역시 연구서 제목으로는 적절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대중의 지적 욕구 충족과 여러 흥미 유발의 요소가 있어서 교양서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이 책에는 사적 신탁 경험의 토로와 같은 흥미 유발의 에피소드가 있다(pp. 15-17), 또한 ‘문화비평’⁶이라 불릴 정도로 현실 사회에 대한 명쾌하고도 직관적인 발언도 적지 않게 존재한다. 감성에 호소하는 표현이나 문장 또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이 책을 그리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게 한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관련 논의에서 찾아볼 수 있는 지적 욕구 충족의 효과 역시 이 맥락에 적합한 사례로 추가할 만하다.

하지만 『신탁 콤플렉스』는 전문 연구서로서의 수준 역시 갖추고 있다. 신탁 콤플렉스라는 새로운 용어의 선언적 제안에 그치지 않고, 개념화를 위한 여러 시도와 노력은 주목할 만하다. 저자는 새로운 개념의 설정과 정의, ‘불안-신탁-콤플렉스’로 이어지는 새로운 독해나 재해석을 위한 모델화, 파생 개념의 설정을 통한 이론적 적용 틀의 확장 등을 시도한다. 이러한 여러 노력과 시도는 이 책이 전문 연구서로서 손색이 없음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 연구서로서 이 책이 이론 성과를 ‘개념화를 위한 시도와 노력’, ‘새로운 개념 설정의 효과 구현’, ‘연구사적 맥락 확인과 그 위치 부여’ 등의 세 측면에서 정리해 본다.

이 책에서 다루는 대상은 특정 작품이나 장르에 그치지 않는다. 신화와 전설은 물론이고, 민요, 굿, 놀이 등이 연구 대상으로 자리한다. 구술문화 혹은 민속 전반에 걸쳐 중형무진으로 신탁 콤플렉스와 관련된 논의를 한다. 여기서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논의가 신탁 콤플렉스에만 함몰되지 않는다

6 박종선(2024), 「조현철 ‘신탁 콤플렉스’, 『주간조선』, 2024. 6. 29., <http://weekly.chosun.com>(접속일: 2024. 7. 29.).

는 점이다. 먼저 신탁에 홀린 자들을 찾아 나서는데, 그 추적은 하나의 분석 방법론으로 모델화할 수 있을 정도로 체계를 갖추고 있다. ‘불안-신탁-콤플렉스’로 단계화할 수 있는 분석 틀에 따라 이루어지는 새로운 독해와 분석은 신탁 콤플렉스 안팎을 아우른다. 신탁에 맞서거나 탈주하는 이들에 대한 고찰까지 논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그 고찰은 등장인물들의 행보 추적에 그치지 않고, 서사 구조 혹은 연행 양상 속에서 그 저항과 탈주의 전략을 찾아내는 데까지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를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용어와 개념 정의까지 한다. 신탁놀이, 반신탁, 탈신탁 등의 새로운 용어 설정과 이에 따른 논의가 진행되는 데서, 『신탁 콤플렉스』가 성취한 전문 연구서로서의 수준은 절정에 도달한다.

사실 새로운 개념 설정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데 새로운 개념 설정의 성패는 이전과는 다른 시각 제시와 이에 따른 적절한 분석에 있다. 그 개념의 확장과 지속 가능성 역시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 저자는 신탁 콤플렉스라는 새로운 개념을 선언적으로 제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앞에서 살폈듯이, 신탁 콤플렉스의 안과 밖을 두루 살피면서 이전과는 다른 시각에서 해석하고 설명한다. 이에 덧붙여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이전에는 논의되지 않거나 지나쳐 버렸던 것들을 문제 삼는 대목들이다. 새로운 개념 설정의 효과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님곳에서 손님신이 네 명인 이유 규명’(pp. 130-142), ‘왜 아기(장수)를 살해하거나 희생양으로 삼았는가’에 대한 의문 제기와 해명’(pp. 156-159), ‘심청의 인당수행을 강제한 최초의 선택 대목에 대한 천착’(pp. 181-187) 등이 그 사례들이다. 이렇게 새로운 의문이 생기고, 이전에는 주목하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만든 것은 새로운 개념 설정의 효과이다. 그리고 이를 실마리로 삼아 신탁과 불안의 관계 속에서 이전과는 구분되는 해석을 한다. 『신탁 콤플렉스』는 이렇게 새로운 개념 설정의 효과를 적지 않게 보여준다.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전문 연구서로서의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속성이 있다. 그것은 다루는 특정 대상에 대한 연구사적 맥락을 곳곳에서 환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관련 연구의 비판적 검토(pp. 71-83), 손님굿의 손님신 숫자에 대한 견해들 제시(pp. 129-130), 아기장수 설화의 여러 해석 경향 설명(pp. 156-159), 『심청전』에서 심청이 인당수로 가야만 하는 이유에 대한 여러 해석 검토(pp. 180-186) 등이 해당 대목 논의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례들은 각각의 논의가 연구사에서 자리하는 맥락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동시에 저자가 진행하는 논의와 주장이 파천황적인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기도 하다. 특정 연구에 영향을 받거나 혹은 반론을 제기하면서 진행되는 연구사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신탁 콤플렉스』가 가진 전문 연구서로서의 속성을 말한다. 이를 통하여 『신탁 콤플렉스』는 고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이전 연구의 비판적 검토와 이후 연구의 튼튼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다.

3.2. 콤플렉스의 징후들

전문 연구자들은 새로운 개념을 고안해 내고 이를 통해서 주목받는 이론적 체계의 정립을 지향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직업병’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나타나는데, 프로이트의 사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프로이트 스스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대해 “이 하나의 사례가 모든 것을 다 설명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되겠”⁷다고 했지만, 프로이트 자신 혹은 그 추종자들에 의해서 직업병이 나타났다. “오이디푸스 제국주의”(p. 76), “오이디푸스주의의 덫”,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만능열쇠”(p. 78), “세계를 오이디푸스 극장으로 치환”⁹ 등으로 비판되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이

7 지그문트 프로이트(2024), 김인수 옮김, 『꿈의 해석』, 열린책들, p. 100.

8 질 들뢰즈·펠릭스 과타리(2014), 김재인 옮김, 『안티 오이디푸스: 자본주의와 분열증』 3판, 민음사, p. 94.

9 장정일(2015), 「[장정일의 독서일기_95] “오이디푸스 모형에 반대한다” <들뢰즈·과타리 ‘안티 오이디푸스’>」, 『시사IN』 2015. 1. 24.

그것이다. 이 직업병은 학문적 콤플렉스일 수 있다. 그런데 필자는 『신탁 콤플렉스』 저자에게서 그 징후라 의심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한다.

신탁 콤플렉스 관련 과생 용어에서 먼저 꼬투리를 잡아보려 한다. 저자는 “신탁 콤플렉스라는 개념을 고안”하고(p. 11), 이어서 ‘신탁놀이’와 ‘가짜 신탁 콤플렉스’, ‘반신탁 콤플렉스’, ‘탈신탁 콤플렉스’ 등의 과생 용어를 제안한다. 여기서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반신탁 콤플렉스와 탈신탁 콤플렉스이다. 표현 그대로 반신탁 콤플렉스는 신탁 콤플렉스에 저항하는 것을 의미하고, 탈신탁 콤플렉스는 신탁 콤플렉스로부터 탈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듯 싶다. 대략 반신탁 콤플렉스는 ‘신탁 콤플렉스에 맞서기’, 탈신탁 콤플렉스는 ‘신탁 콤플렉스 벗어나기’로 부를 수도 있겠다. 사실 저자는 두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와 그 차이를 분명하게 말하지 않아서 모호한 점이 있다. 다만 “반신탁 콤플렉스는 신탁을 위반함으로써 신탁으로부터 거리를 확보하여 콤플렉스라는 심리적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므로, 탈신탁 콤플렉스에 도달한 것”이라는 언급에서(p. 106), 반신탁 콤플렉스의 다음 단계로 탈신탁 콤플렉스를 설정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저자의 의도와는 달리, 두 용어가 또 다른 콤플렉스로 오해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반신탁 콤플렉스는 ‘반신탁에 의존하는 심리 상태’로, 탈신탁 콤플렉스는 ‘탈신탁에 의존하는 심리 상태’로 오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오해는 그 조어(造語) 방식에서 기인한다.¹⁰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오해 소지가 큰 방식으로 용어를 만들었을까? 혹 신탁 콤플렉스라는 용어에 집착하게 됨으로써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조어를 한 것은 아닐까? 이러한 조어 방식 혹은 명명 방식은 강박에서 온 것일 수 있다. 그리고 그 강박은 불안에서 오는 콤플렉스의 시작이기도 하다. 이러한 콤플렉스의 징후를 또 다른 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곳은 <도량선비 청

10 필자는 ‘반-신탁 콤플렉스’, ‘탈-신탁 콤플렉스’로 조어하는 것이 그나마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한다.

정각시) 논의 대목이다.

저자는 청정각시가 “지독한 신탁 콤플렉스에 썩어”있다고 말한다(p. 93). 이러한 해석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 하지만 이는 텍스트 문면에 한정했을 때의 평가이다. 저자의 <도량선비 청정각시> 해석과는 다른 견해도 존재한다. 신동훈의 견해가 대표적이다. 그는 <도량선비 청정각시>가 “고통의 극한에서 극복의 길을 찾는 역설적인 치유의 미학”을 드러낸다고 주장한다.¹¹ 청정각시가 “쏟아내는 울음은 세상 사람들의 수많은 고통과 한을 대리 표출하는 역할”을 하며, 청정각시의 죽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자신이 “청정각시가 되어 죽음을 체험하는 가운데 그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다.¹² 그런데 이 해석에 대한 동의/비동의 여부는 논외로 하고, 여기서 짚어보아야 할 것이 있다. 그 하나는 연구사적 검토의 부재이며, 또 다른 하나는 ‘굿 연행 맥락의 무시’이다.

신동훈 논의에서 확인한바, <도량선비 청정각시>에 대한 다른 견해도 존재한다. 더구나 그 논의에서 저자의 연구를 언급하며 다른 입장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저자는 관련 검토를 수행하지 않았다.¹³ 오이디푸스 신화, 손님굿, 아기장수 설화, 심청 이야기 등의 관련 논의에서 연구사적 맥락을 짚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저자는 <도량선비 청정각시> 논의 대목에서 곧바로 자신의 주장으로 진입한다. 저자는 <도량선비 청정각시> 논의 대목에

11 신동훈(2016), 「서사무가 속의 울음에 깃든 공감과 치유의 미학 - 특히 <도량선비 청정각시>를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32, p. 31.

12 신동훈(2016), p. 31.

13 신동훈은 “극단의 고행에 이은 자살의 결행이라는 문제적 전개를 어떻게 해석할까 하는 것은 <도량선비 청정각시> 해석의 쟁점적 과제가 된다. 이에 대한 연구로 주목할 것은 조현철의 논의이다. 그는 청정각시의 고행과 자결이라는 극단의 비정상적 상황에 대해 그것이 사회의 지배권력이 행사하는 억압과 폭력의 결과물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며 저자를 거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가 “논리 정연하고 예리한 해석이지만 불편함 내지의 아합이 남는 것 또한 사실”이라 평가한다. 신동훈에 의하면 청정각시의 행보에 대한 해석은 “굿 본래의 치유적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신동훈(2016), pp. 52-53.

서 굿 연행 맥락의 고려 역시 하지 않는다. 이 또한 의외의 양상이다. 『신탁 콤플렉스』 곳곳에서 보여준 굿 맥락에 대한 환기와는 다른 모습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도량선비 청정각시〉가 무당의 노래로 굿판에서 전승된다”고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그러하다(p. 98). “표면적 서사가 아닌 이면의 정서적 맥락에서 볼 때, 그리고 그와 어울린 의례적 맥락에서 볼 때”¹⁴ 청정각시의 극단적 고행에 이은 자살의 결행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아쉽다.¹⁵ 사실에서 나타나는 신탁 콤플렉스를 더욱 강화하는 굿 연행으로 보거나, 아니면 꼬댁각시놀이에서처럼 사실 〈꼬댁각시노래〉를 전환하는 방식으로 신탁을 상대화하여 신탁 콤플렉스에 맞서거나 넘어서는 사례로 볼 여지 자체를 없애 버린 것이다.

『신탁 콤플렉스』에서 〈도량선비 청정각시〉 고찰은 ‘신탁놀이와 반신탁 콤플렉스’를 논의하는 4장 첫머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지독하게 신탁에 홀린 청정각시의 행로를 추적하는 내용은 반신탁을 논의하는 4장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앞에서 살폈듯이 이는 저자의 서술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제기한 청정각시 관련 논의의 아쉬움은 그 서술 전략에 매몰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보려는 것만 보게 되고, 굿이라는 연행 맥락을 무시한 것이다. 이는 또 하나의 강박이자 집착의 산물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핀 아쉬움은 저자의 단순한 실수나 필자의 오해 혹은 오독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필자는 용어의 조어 방식에서 꼬투리를 잡고,

14 신동훈(2016), p. 53.

15 사실 조현설과 신동훈의 논쟁점은 〈도량선비 청정각시〉가 연행되는 굿판의 역할이다. 조현설은 다른 글을 통해 〈도량선비 청정각시〉가 연행되는 굿판이 의례라는 형식을 통해 남성 지배의 상징 권력을 주입하고 정당화하는 교육의 장으로 기능한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이에 비해 신동훈은 〈도량선비 청정각시〉가 연행되는 굿판의 역설적인 치유 가능성에 주목한다. 조현설과 신동훈의 굿판 역할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는 다음을 참조. 조현설(2001), 「여신의 서사와 주체의 생산」, 『민족문화사연구』 18, pp. 225-227; 신동훈(2016), pp. 48-60.

〈도량선비 청정각시〉 논의에서의 부재와 무시 사례에서 저자의 집착, 강박을 읽어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신탁 콤플렉스 모델로 읽어내려 하는 강박이자 집착이다. 물론 이는 전문 연구자의 숙명 혹은 흔히 나타나는 직업병일 수 있다. 이를 ‘신탁 콤플렉스 콤플렉스’라 부를 수 있다. 모든 것을 신탁 콤플렉스 모델로 설명하려는 강박이나 집착을 일컫는다. 신탁 콤플렉스를 만능열쇠화하려는 의식적·무의식적 욕구의 산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필자의 진단은 꼬투리 잡기이거나 판지결기일 수 있다. 그야말로 침소봉대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막 하나의 이론을 만들어가는 단계에서 논란이 될 만한 것의 검토 사항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기에 감히 제기해 본다.

4. 신탁 이후 나의 행보와 신탁 콤플렉스의 메타 논의를 위하여

저자는 『신탁 콤플렉스』를 소개하는 글에서 “유일신에 기초한 서구 정신사에서는 신탁이 콤플렉스로 작동하는 데 대한 이해는 있었어도 신탁을 콤플렉스로 규정하는 개념화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하고, 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¹⁶ 이후 이 주제에 관하여 연구하고 싶다는 저자의 포부로 읽힌다. 서구 정신사와 비교하며 우리 문화의 특징을 강조하는 유사한 언급은 『신탁 콤플렉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신을 절대화하는 경향이 있는 서구의 정신사적 전통과 달리 우리 문화의 신은 유일하지도 절대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신탁 콤플렉스에 맞서거나 넘어서는 양상이 나타난다는 언급이다(p. 12). 서구와 우리를 대비하면서 신탁 콤플렉스의 양상을 설명하는 방식은 『신탁 콤플렉스』 관련 소개 글

16 조현설(2024), 「신탁에 홀린 자들」, 『대학지성』, <https://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02>(접속일: 2024. 7. 29.).

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서구와 달리 우리 문화의 신화와 전설에서는 종종 신탁 콤플렉스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에 반발하고 빠져나가는 인물들이 보인다”라는 내용이 그것이다.¹⁷

이렇게 서구를 타자로 설정하고 우리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방식에 대해 필자는 조심스럽다. ‘신탁 콤플렉스에 맞서고 탈주하는 이들이 과연 우리에게만 두드러진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이다. 필자는 그것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우리 문화적 서사’¹⁸의 특징이라 주장하는 것에 조심스럽다. 대비의 경계는 서구와 우리, 혹은 서양과 동양에 그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그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그 대비의 경계선을 ‘유일신/다신’, ‘주류문화/비주류문화’, ‘지배문화/피지배문화’, ‘문자문화전통/구술문화전통’ 등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후 연구의 전망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더 많은 사례 연구가 축적되어야 한다. 신탁에 홀린 자들은 물론이고 신탁을 상대화하고 놀이화하는 이들의 행로를 따져보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이 가운데 필자는 신탁에 맞서거나 탈주하는 이들의 행로 추적에 관심이 있다. 그런데 필자는 그 관심이 단지 사례들의 축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탁 콤플렉스 자체를 문제 삼는 연구로 이어졌으면 한다. 그것은 곧 신탁 콤플렉스에 대한 메타 연구이다. 이 연구는 우리에게 두드러진다는 신탁과 맞서거나 탈주하는 양상에 대한 논의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도 하다. 필자는 ‘반/탈신탁 콤플렉스’로 이행하는 신탁 놀이라 칭하는 것들이 신탁 콤플렉스에 대한 메타적 인식의 사례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주제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필자는 꼬매각시놀이처럼 텍스트와 그 연행이 신탁 콤플렉스 문맥에서 달리 나타나는 것을 주목하고 싶다. 〈꼬매각시노래〉를 연행하는 꼬

17 이학사(2024), 「[도서] 신화와 전설로 읽는 한국 사회의 불안과 점복 문화 - 조현실, 《신탁 콤플렉스》 출간, 『브릭스』 문화 소식, bricksmagazine.co.kr(접속일: 2024. 7. 29.).

18 장정일(2015).

매각시놀이는 신탁의 상대화이자 놀이화의 사례이다. 동시에 그것은 신탁에 대한 메타 인식 또는 반성적 신탁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메타 신탁으로서 자리하는 것이 꼬매각시놀이다. 이러한 사례 연구를 좀 더 많이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연행되는 것들, 연행을 통해서 그 존재를 드러냈거나 내는 것들에 대한 접근을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 곳곳에서 구연되는 여러 신화, 이야기판에서 연행되는 여러 전설에 대하여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것이다. 텍스트만이 아니라 그 텍스트가 자리한 연행 문맥을 염두에 두는 접근이다. 무속신화나 민요, 그리고 전설은 그 연행 과정에서 탈신탁의 행로가 신탁 콤플렉스로 이행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신탁에 집착하는 행로가 반신탁 혹은 탈신탁의 모습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그러한 것들을 살피는 연구가 이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필자가 이 책의 아쉬운 점으로 지적했던 〈도량선비 청정각시〉 관련 논의도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신탁 혹은 신탁 콤플렉스에 대한 메타적 인식은 비단 웃음이나 신명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닐 수 있다. 그것은 울음이나 다른 방식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 적어도 〈도량선비 청정각시〉는 그 문맥에서의 연행에서 울음을 통해 “자유로운 심리적 공간”(p. 188)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곧 반/탈신탁으로 이행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이렇게 필자가 제안하는 연구의 전망은, 텍스트 자체를 전복시키는 연행의 힘(전략)을 확인하는 메타적 논의를 섬세하게 해보는 것이다. 신탁에 홀린 자들의 행보가 연행을 통해 놀이꾼이나 신명꾼의 반/탈신탁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물론 가능하고, 신탁 콤플렉스와 관련한 특정 상태가 강화될 수도 있다. 이러한 필자의 제안은 텍스트를 반성하게 하는 연행 양상 연구 곧, 메타 논의라 할 수 있다.

잘 정돈되고 치밀한 연구 성과를 보여온 저자의 역량은 『신탁 콤플렉스』에서 역시 변치 않았다. 필자가 몇 가지 아쉬움과 우려를 표명하기는 했지만, 기우에 그치기를 바란다. 이제 글을 마무리할 때이다. 이 글의 서두에서 고백한 필자의 신탁 체험의 이후 행보를 되돌아보는 것으로 글을 맺으

려 한다. 나의 신탁은 콤플렉스의 경로를 따라가지는 않았던 듯하다. 나는 그 예언대로 관재수를 당했고, 87년에 큰 난리는 일어났다. 신탁의 예언이 맞아떨어진 상황은 필자의 이후 삶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신탁과 그 이후의 행보는 적어도 신탁 콤플렉스의 진행 절차와는 거리가 있었다. 신탁 체험 이후에도 나는 꺼림직함은 있었지만, 신탁의 내용에 휘둘리지 않았다. 불안감이 내 일상에 장애를 주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물론 당시 그 리고 지금까지 세계에 대한 불안함은 가지고 있다. 그 불안함이 신탁 체험을 통해 잠깐 환기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신탁이 불안을 증폭시키고 또 다른 신탁에 의지하는 식의 콤플렉스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가끔 이상한 소리를 하는 시골 노파의 예언이나, 어쩌다 만 리를 보는 만신의 예언을 무시한 나의 선택은 무엇일까? 나는 신탁 중개자의 신뢰성을 의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탁을 상수가 아니라 변수로 보았던 듯하다. 그저 참조 사항으로 여기거나 잠음으로 여겼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나아가 신탁은 신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따라 실재가 된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콤플렉스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나는 신탁에 홀린 자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맞서는 자였을까? 혹은 신탁 그 자체를 무시하고 넘어선 탈주자였을까? 『신탁 콤플렉스』를 읽으면서 내내 머리를 떠나지 않은 의문들이다. 다시 생각해 보니, 나의 삶에서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장벽에 부딪힐 때마다 혹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을 만날 때마다, 신탁 체험은 내 변명의 근거지 혹은 정신 승리의 출구가 되었던 것 같다. 특히 제주도 시골 할망의 예언과 그 실현은 나의 변명거리이자 출구가 되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나 역시 신탁 콤플렉스의 가장자리에서 계속 서성거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혹은 그 예언의 실현에서 기인한 좌절과 실망의 반복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은 나에게 없었는가? 그렇다면 여기서 벗어날 길은 무엇인가? 신탁 콤플렉스에 맞서거나 탈주하는 길은? 이 모든 것이 부질없는 망상이

라며 신탁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한 결론을 필자는 아직 내리지 못했다. 신탁 콤플렉스의 저항자 혹은 탈주자라고 생각했던 내가 이 책의 독해 과정을 거치면서 또 다른 의심을 하게 되었다. 나에게 신탁 체험을 떠올리게 하고, 변명과 도피의 행보였을 가능성을 반성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 이 책은 그래서 가치가 있다. 저자가 오늘의 한국 사회에 던지는 질타 이상의 가치가 내게는 있는 것이다. 사적인 이 책의 독서 성과이다.

참고문헌

- 들뢰즈, 질·펠릭스 고틀리(2014), 김재인 옮김, 『안티 오이디푸스: 자본주의와 분열증』 3판, 민음사.
- 박종선(2024), 「조현설 '신탁 콤플렉스'」, 『주간조선』, 2024. 6. 29., <http://weekly.chosun.com>(2024. 7. 29.).
- 백정우(2024), 「[백정우의 읽거나 읽히거나] 신탁은 불안을 자양분으로 실현된다」, 『매일신문』, 2024. 8. 8.(<https://www.imaeil.com/page/view/2024080712300191751> (접속일: 2024. 8. 10.).
- 신동훈(2016), 「서사무가 속의 울음에 깃든 공감과 치유의 미학 - 특히 <도량선비 청정각시>를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32.
- 옹프레, 미셸(2013), 전해영 옮김, 『우상의 추락, 프로이트 비판적 평전』, 글항아리.
- 이학사(2024), 「[도서] 신화와 전설로 읽는 한국 사회의 불안과 접복 문화 - 조현설, 《신탁 콤플렉스》 출간」, 『브릭스』 문화 소식, <https://bricksmagazine.co.kr/news/?idx=17621288&bmode=view>(접속일: 2024. 7. 29.).
- 장정일(2015), 「[장정일의 독서일기_95] “오이디푸스 모형에 반대한다” <들뢰즈· 고틀리 ‘안티 오이디푸스’>」, 『시사IN』, 2015. 1. 24.
- 조현설(2001), 「여신의 서사와 주체의 생산」, 『민족문학사연구』 18.
- 조현설(2015), 「신탁 콤플렉스」, 『문학사상』 12월호.
- 조현설(2024), 「신탁에 홀린 자들」, 『대학지성』, <https://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02>(접속일: 2024. 7. 29.).
- 프로이트, 지그문트(2004), 김인수 옮김, 『꿈의 해석』, 열린책들.

